

# 선거·전쟁·온난화... 올해도 지구는 숨차다

## ①美 어떤 유형 리더십 선택할까

미국은 올해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더불어 어느 해보다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미 달러화 가치가 서브프라임모기지 파동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미국 경제가 중대한 침체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의 재부상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9.11 참사 이후 미국의 안보와 세계평화 및 질서 확보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테러와 전쟁(War on Terror)'에서 보여준 일방주의적 외교정책도 재검점을 요구받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오는 3월 아이오와 주 코커스(당원대회)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미국 대선과정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지도자를 선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이클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등 양당 유력 후보들은 자신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전세계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준비된 지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 ■지구촌 기상도



## ②日 총선... 정권교체 이뤄질까

일본의 새해 화두는 정권교체다. 구미 선진국 형의 양당제 정착으로 자민당의 1당 지배 체제를 종식하고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일본 정국은 정상적인 정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꼬여 있는 상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중의원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참의원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여야의 합의가 없는 법안 통과조차 곤란하다.

일본어로 뒤틀려 있다는 의미의 '네지레 국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실시할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중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 정권을 교체하거나 자민당의 승리로 정계 개편 등을 통해 틀을 다시 짜는 방법이다.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가 과반 이하로 내려갈 경우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여당이 그대로 선전해 중의원 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야당이 참패할 경우에는 정계의 새 판 짜기가 활발하게 이뤄질 공산이 있다.

새해는 일본에서 민주당의 단독 정권 교체가 실현될지, 또 여야간 대연정이 이뤄질지 일본 국민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다.

## ③보일 듯 말 듯 중동평화

지구촌 분쟁의 중심지인 중동은 올해에도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계속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근대사에서 전쟁이 가장 빈발했던 곳이면서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큰 지역이 중동이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기 전에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이슈들이 내연(內燃)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중동을 불안하게 하는 최대 요소는 역대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대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다. 여러 차례 전쟁의 원인이 됐던 팔레스타인 문제는 1948년 아랍인들이 지배하던 중동의 한복판에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이 들어서던 때서 비롯됐다.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신세로 전락해 권리 회복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란의 핵 문제 역시 계속해서 지구촌의 뜨거운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2003년 중단됐다는 평가 보고서를 최근 내놓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명분이 약해져 걸프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작아졌다.

## ④中 후진타오 2기 개막

후진타오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5년간의 집권 1기를 마무리하고 2008년부터 집권 2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제왕적 단일 지도 체제를 확립하지 않고 3개 계파가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중국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후 주석은 애초 측근인 리커창 라오닝 성 당서기를 중국의 차기 후계자로 추대하려 했으나 상하이방과 태자당의 반대로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태자당 계열로 분류되는 시진핑 상하이시 당서기가 중국 권력 서열 6위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로 진입하며 후계자로 내정됐다.

시진핑 상무위원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부주석으로 임명되면서 이번이 없는 한 후진타오 집권 2기가 끝나는 2012년 최고 지도자로 올라서게 된다. 결국, 후진타오 집권 2기는 후 주석 계열의 공청단과 장쩌민을 수장으로 하는 상하이방, 쑹칭훙을 필두로 하는 태자당 3대 계파의 집단지도체제가 되는 셈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3대 계파별 권력 균점을 깨고 앞으로 세력 확장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집권 2기 후반기에 중국 권력구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⑤온실가스 급증... 열병앓는 지구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올해에도 여김없이 지구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고여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2007년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던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지난해 11월 17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발표한 제4차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앙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대기와 해양의 평균 온도 상승과 빙하 및 눈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등을 관찰한 결과 지구의 온난화는 명백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8도, 해수면은 10~20cm 각각 상승했으며, 인간이 방출한 온실가스는 1970년을 기준으로 삼을 때 2004년 현재 80%가 늘었다.

지표면 온도는 특히 극지방에서 많이 올라갔다. IPCC는 지

구의 평균 온도가 앞으로 1980~1990년의 평균 온도에 비해 1.5~2.5도 더 상승하면, 홍수와 가뭄, 폭풍, 사막화, 전염병 창궐 등과 함께 전 세계 식량과 동물 가운데 20~30%가 멸종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들은 이미 세계 주요 분쟁의 씨앗이 되는 등 국제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안 지역이 범람하거나 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지고, 유럽은 알프스 빙하 등이 줄어들어 식·동물 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 (주) 로빈**

주요 제품 소개

TEL: 02-261-1111

**29 Family**

주요 제품 소개

TEL: 02-261-1111

**EDL 영어외국어학원**

주요 제품 소개

TEL: 02-261-1111

**현대직업전문학교**

주요 제품 소개